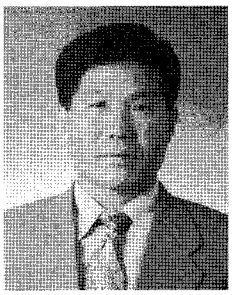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 정원속의 조경수

## 머리말



농학박사 **박 형 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사람은 항상 저 푸른 초원위에 집을 짓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 또 사람은 자연을 벗 삼아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은 아마도 나무, 들꽃 등을 사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삶일 것이다.

정원과 화단을 만드는 것도 이런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듯 싶다.

## 1. 정원 내부의 나무 배치

정원 내부의 공간배치는 시공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원의 구성은 기본적인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나치게 나무를 많이 식재하면 답답하다.

집앞에 큰 나무를 심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일 수 있으므로 집의 크기에 따라 크고 작은 적정한 나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배경으로 심는 나무는 대체적으로 키가 큰 상록수를 선택하고 정원 안쪽으로는 관목과 목본식물을 심는 것이 주택과 정원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배치 방법이다.

## 2. 철마다 가장 아름다운 조경수

수목을 식재 할 때는 계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원에 식물을 보고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화목류를 중심으로 먼저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나무로 3월에 눈망울을 터트리는 산수유, 매화나무, 풍년화, 희어리나무 등이며 이뒤에 이어 벚나무, 목련, 진달래, 개나리, 철쭉등의 종류가 있다.

5~6월로 접어들면서 줄기나 잎의 새싹들이 왕성하게 나옴으로 생명감을 느끼게 한다. 이때부터 신초들이 완전히 나와 녹색을 띄면서 여름의 무턱으로 나가 간다. 여름에는 산딸나무, 나무수국 등이 좋으며 산딸나무의 열매로 새들의 먹이로 새를 유도 할 수도 있다. 나무수국의 꽃도 봄에 새로운 꽃이 필 때까지 꽃이 붙어 이다.

가을은 역시 잎의 단풍, 열매 등이 주된 관상 포인트다. 적합한 수종으로는 단풍나무, 화살나무, 작살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덜꿩나무, 팥배나무 등이다.

○ 그늘을 줄수 있고 꽃 단풍을 주는 수목

〈산딸나무꽃〉

겨울동안 대부분의 낙엽성 관목류들은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상록성인 구상나무, 소나무, 주목 향나무류등이 좋으며 남부 지방에서는 감탕나무류를 식재하여 균형을 맞춘다.

## 3. 조경수목의 선택과 구입요령

### 1) 수목의 선택

수종의 선택에서는 크게 대중성이 있고, 우리나라 자생수종이 좋다.

대중성이 있는 수종이라 하면 그 나무의 여러 가지 특성이 여러 사람에게 공감하는 수종이 좋다.

만일 외국에서 수입되어 조경적 가치가 큰 수종이라 하여 무조건 구입 식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재배한다면 판로 상에 문제가 크게 발생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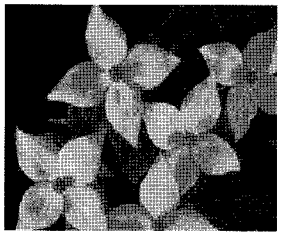
앞으로 조경수종을 식재 할 때는 그 지방의 특색과 환경에 맞는 수종을 식재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온도와 강수량, 표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난대, 온대남부, 중부, 북부한대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적당한 수종을 결정 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그 지방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계절에 꽃이 피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겨울철에는 열매의 색깔로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새의 먹이도 될 수 있으면 더 좋다. 조경수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조건들을 만족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1) 수형이 아름답고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
(2) 이식하기 쉽고 이식 후 잘 자라는 것.
(3) 환경에 적응성이 잘되는 것.
(4) 병해충에 강한 것.
(5) 정지 전정에 잘 견딜 수 있는 것.

또한 정원에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 꽃을 볼수 있는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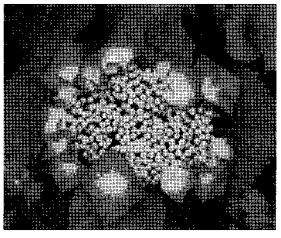


〈산딸나무꽃〉

〈모감주나무꽃〉

〈수양겹벚나무꽃〉

〈때죽나무꽃〉



〈수국〉

〈나무수국〉

〈가로수무궁화〉

맺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좋으므로 각 계절마다의 꽃나무를 잘 섞어서 심는 것이 좋다 이때 상록수와 낙엽수, 키 큰나무와 작은 나무들을 변화있게 혼식을 하여 식재 하여야 하며 이때 묘목을 고를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묘목의 줄기와 가지사이의 배치가 잘 되어 있고 눈으로 보았을 때 나무가 싱싱하여야 한다.
(2) 묘목에 상처가 없고 가지의 눈이 충실하고 고르게 배치되어야 된다.
(3) 뿌리에 상처가 없고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4) 묘목의 잎이나 가지에 병해충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제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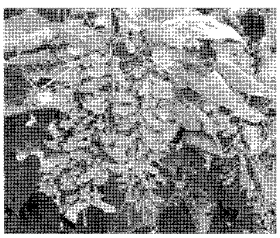
어린 묘포에서의 제초작업은 잡초의 발아 억제제 및 제초제를 주지 말고 직접 김메기로 하고 고랑에만 제초제를 준다.

• 침엽수 : 7~8회 • 활엽수 : 4~5회

- 제초제는 침투성으로 뿌리까지 죽이는 바스타, 라운드업, 근사미.
- 지상에 있는 잎과 줄기만을 죽이는 비 침투성은 그라목손, 파라코.
- 초판에 제초를 할 때 쑥, 메싹 등의 숙근초까지 완전히 제거하려면 침투성 제초제를

### ○ 열매를 감상할 수 있는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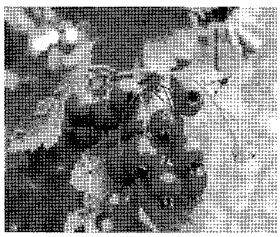
〈남천열매〉



〈산겨릅나무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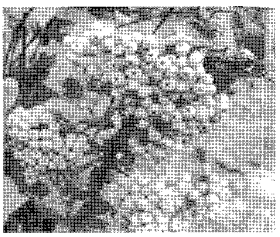
〈산딸나무열매〉

〈덜꿩나무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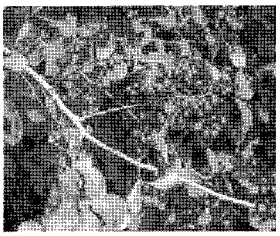


〈산사나무열매〉

〈팥배나무〉



〈황색피라칸사〉



〈낙상홍열매〉

○ 단풍을 감상할수 있는 수목

〈적단풍〉

〈산딸나무단풍〉

쓰고 그후의 제초는 그라목손이나 파라코액제를 사용.

## 4. 고유한 특성에 따라 조경수 고르기

정원의 경우 너무 크게 자라거나 사후 관리가 어려운 나무는 피하고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사계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상록수, 활엽수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식재하는 것이 기본 요령이다. 지역에 따라 적지적수의 수목을 골라 정원의 앞에는 작은 나무부터 큰나무를 식재 하여야 한다. 특히 관리에 중점을 두어 항상 수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주목, 향나무,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느티나무 등

○ **그늘이 많이 생기는 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팽나무 등

○ **꽃이 아름다운 나무**

산딸나무, 벚나무류, 자귀나무, 귀룽나무, 마가목, 배롱나무, 해당화, 노각나무, 백당나무, 수국류, 명자나무 등

○ **울타리로 적당한 나무**

쥐똥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탱자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서양측백, 피라칸사, 주목, 개나리, 철쭉류, 명자나무, 쉬땅나무, 조팝나무, 화살나무 등

○ **가로수로 적합한 나무**

은행나무, 백합나무, 양버즘나무, 은단풍나무, 가중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참느릅나무, 무궁화, 개나리, 낙상홍, 수수꽃다리, 산수유, 등

○ **주택가 정원수종**

느티나무, 팽나무, 오동나무, 배롱나무, 밤나무, 백목련, 벚나무류, 서어나무, 칠엽수, 회화나무, 감나무, 때죽나무, 층층나무, 자두나무, 매화나무, 박태기나무, 자목련, 소나무, 배롱나무, 모감주나무, 모과나무등

○ **남부 지역의 환경정화 수종**

소귀나무, 가시나무, 태산목, 녹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아왜나무, 꽝꽝나무, 사철나무, 광나무, 협죽도, 차나무, 팔손이, 철쭉류등